

우기와 함께 시작하는  
6월의 이야기.

# MUMBAIKAR

9<sup>th</sup> batch Mumbai. India Team

1. 6월 일정
2. 관계 맺기
3. 궁금증 & 고민
4. 포토 에세이
5. Life in Mumbai





# 6월 일정



일	일	화	수	목	금	토
30						1 평가& 캠페인 준비
2 평가& 캠페인 준비	3 평가& 캠페인 준비	4 중간평가	5 중간평가 350ppm 캠페인(Film)	6 350ppm 캠페인(Andheri)	7 350ppm 캠페인(Bandra)	8
9	10	11 Hindi class	12 English class	13 Hindi class	14	15
16	17	18 Hindi class	19 English class	20 Hindi class	21 English class	22 Sports Event
23	24 English class Toy Library	25 Soccer coaching	26 Morning tuition English class	27 Morning tuition Soccer coaching Hindi class	28 Morning tuition English class	29 Morning tuition Soccer coaching



관계 맺기



# Mid Evaluation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월부터 5월까지의 활동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었다. 3일 저녁 뭄바이에 도착한 이총재실장님, 김기돈 대전Y간사님 그리고 국민은행 장도성 과장님을 3명의 팀원들이 마중 나갔었다. 그리고 4일부터는 우리 활동에 대한 PPT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간평가가 시작되었다.





# Mid Evaluation

4일에는 우리가 3월에 활동 했었던 즉, 지금 활동하고 있는 Andheri로 오기 전에 활동 했던 곳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을 평가단도 같이 만날 수 있었고 그 아이들로부터 노래선물도 받을 수 있었다. 또 평가단, 현지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한식당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 그 동안 쌓였던 한국 음식에 대한 갈증도 해결할 수 있었다.





# Mid Evaluation



마지막으로 5일에는 뭄바이의 유명한 빨래터인 도비갓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후 반드라Y, 주후비처를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Boys' Home으로 돌아와 우리가 350ppm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평가단이 볼 수 있었다.

우리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현지Y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완해주시고 남은 2달의 생활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했으며, 중간평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한 3일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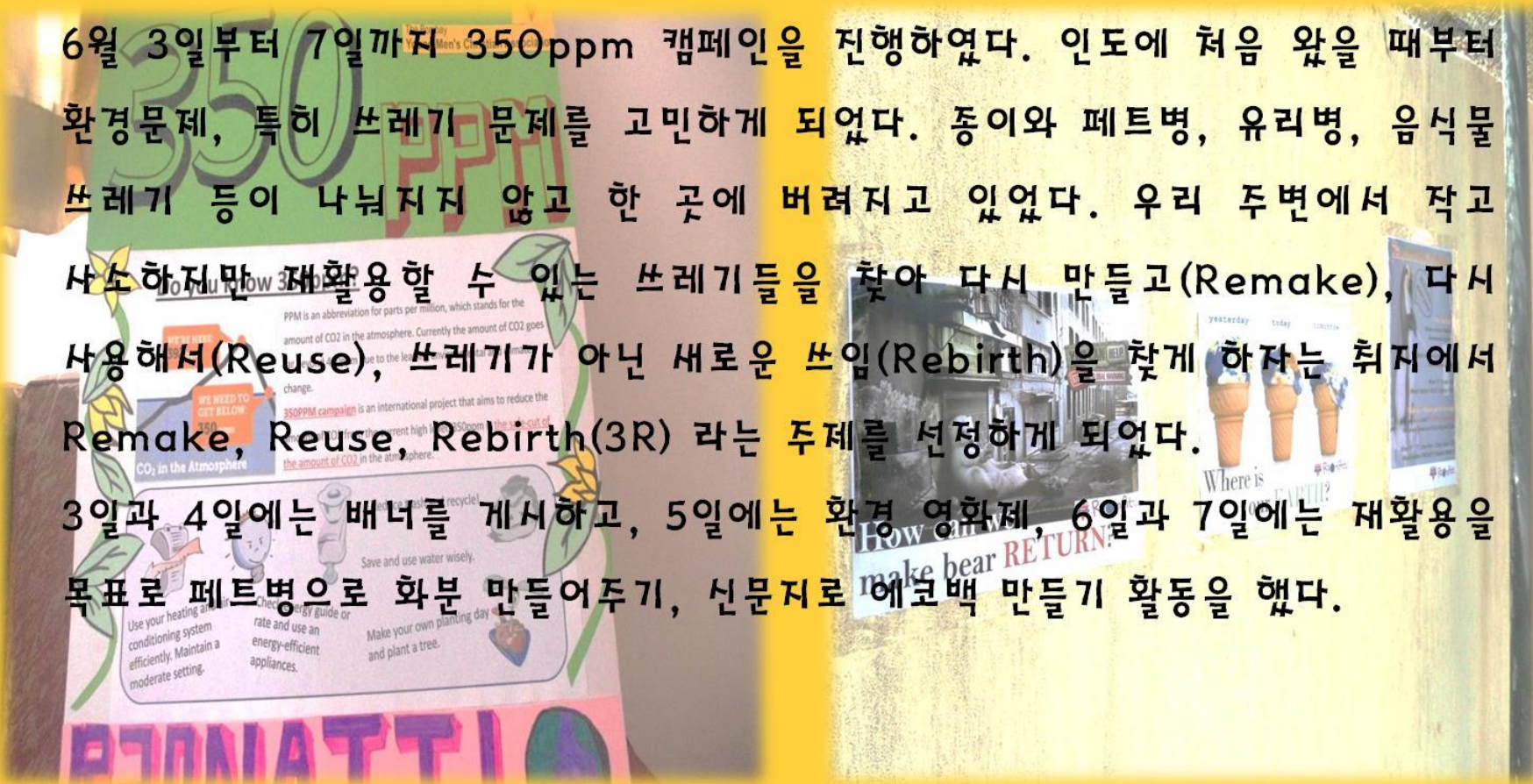




# 350ppm Campaign

6월 3일부터 7일까지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인도에 처음 왔을 때부터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종이와 페트병, 유리병, 음식물 쓰레기 등이 나뉘지지 않고 한 곳에 버려지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작고 사소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찾아 다시 만들고(Remake), 다시 사용해서(Reuse),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쓰임(Rebirth)을 찾게 하자는 취지에서 Remake, Reuse, Rebirth(3R) 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3일과 4일에는 배너를 게시하고, 5일에는 환경 영회제, 6일과 7일에는 재활용을 목표로 페트병으로 화분 만들어주기, 신문지로 에코백 만들기 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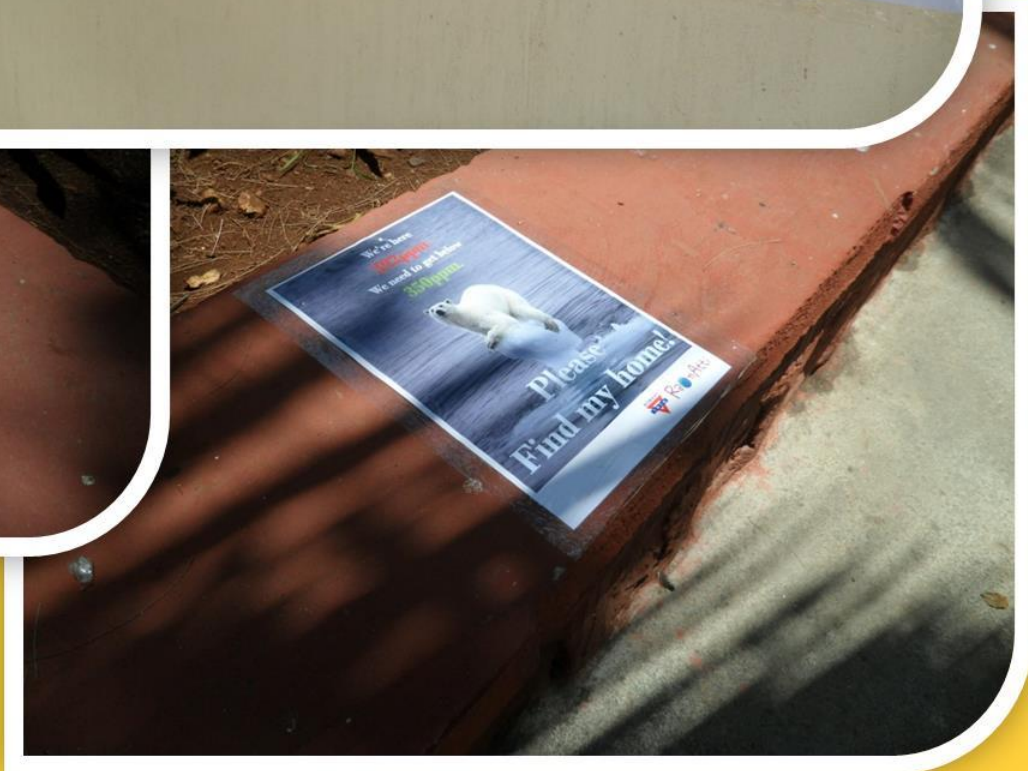


# 350ppm Campaign

6월 3일과 4일에는 본 캠페인을 진행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350ppm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YMCA 내부에 'Do you know 350ppm?' 배너를 게시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캠페인 참여를 요구하는 글과 홍보 포스터를 함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 350ppm Campaign

본 캠페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환경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 <11번째 시간>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환경 전문가, 운동가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견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Andheri YMCA와 Bandra YMCA 두 곳에서 영화를 상영하기에 앞서 350ppm와 라온아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11번째 시간>을 상영했다.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개인 소감을 받았다. 하지만 어려웠던 점은 누가 보러 올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자막 없이 영어로 진행되는 영화를 준비하여 참여한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점이다.







# 350ppm Campaign

6월 6일과 7일은 본 캠페인을 진행한 날이다. 이틀에 걸쳐 화분 나눠주기와 에코백 만들기라는 활동을 Andheri와 Bandra라는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350ppm Campaign

사용한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팀에서 사전에 길러놓은 식물(수세미, 토마토)을 화분에 심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단순히 화분만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캐치 프레이즈(손수건 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양치 컵 사용하기, 걸어 다니기, 장바구니 사용하기)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이 고른 캐치 프레이즈와 함께 'one action saves the earth.' 문구를 화분에 부착해주었는데, 식물을 키우면서 화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 350ppm Campaign

폐 신문지를 이용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조그마한 종이가방을 직접 사람들이 만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 신문지와 풀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 종이로 만든 가방이라 금세 망가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또 실제적으로 제작한 종이가방을 제대로 활용할지도 의문이 들었지만, 참여한 아이들에게 자기가 만든 종이가방에 이름을 쓰도록 하기도 하고 종이가방에 끈을 매달아주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함을 느끼게 했고,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해주어 캠페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English Class

기존에 인도인의 진행 하에 우리가 보조로 들어가던 수업이 21일부로 끝이 났다. 원래 클래스가 3개월간만 진행될 예정이었던 점도 있고 현지 봉사자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수업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계속 해서 이 수업을 진행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우리는 우리끼리 수업을 해보기로 했다. 24일에는 학생들이 뭘 배우고 싶어하는지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한 후 진행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언어의 한계가 있었기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영어수준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학생들이 다 이해할지는 알 수 없지만, 7월 말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며 진행할 계획이다.





Maybe it's under his  
roommate's name  
M: Well, I guess so  
P: Maybe you can call his office and  
ask his secretary  
M: I have already tried. She said  
she says it is private  
P: Oh, that's right. They usually don't  
release private information over  
the phone.





# Morning Tuition

Boys' Home에서는 아침마다 튜션이 있다. 튜션을 해주기 위해 3명의 봉사자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지만 1학년 아이들 10명은 정규적인 튜션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명의 아이들의 학교 숙제와 영어, 수학 공부를 도와주며 튜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 모닝튜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아디티야(7)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개구쟁이  
신예, 귀여운 보조개  
소유자



크리쉬나(7)

내 감정은 롤러코스터,  
아무도  
내 눈물을 막을 수  
없으셈

발라... (7)  
(풀네임은 아무도 모름)

미스터리한 학구파  
군기반장





아카쉬 (7)  
두 손 들게 만드는  
악동 끝판왕



아니켓 (7)  
Love가 필요한  
Rubber Boy

제이 (7)  
걱정 많은  
폭풍 마라티어쟁이



아유쉬 (7)  
O.N.E.1만  
일주일째.







라이언 (7)  
왜소하지만 공부할 때  
만큼은 자이언트 베이비



옴카르 (7)  
힌디어 폭발  
참외 배꼽

유라지 (7)  
독을 품은 똑똑이



# Soccer Coaching

Boys' Home 아이들의 강력한 요구와 나한영 단원이 **축구 코치를 배워던 경험을 활용해** 축구 코칭을 우리 기수에서도 실시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가능한 서간인 화, 목, 토 주**

**3일로 해서 오전에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을 그리고 오후에는 비교적 높은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는 **일자 별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코칭을 진행하려 했으나 날씨와 장소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체계적인 코칭 보다는**

**축구 경기 위주의 코칭이 되어가고 있다.**

	06월 25일	06월 27일	06월 29일	07월 02일	07월 04일	07월 06일	07월 09일	07월 11일	07월 13일	07월 16일	07월 18일	07월 20일	07월 30일	08월 01일
후세연														
이르한														
도릭														
다락														
수닐														
가네쉬														
움까르														
무두														
마네쉬 푸로														
마네쉬 나이루														
피완														
산토스														
	07월 25일	06월 27일	07월 29일	07월 02일	07월 04일	07월 06일	07월 09일	07월 11일	07월 13일	07월 16일	07월 18일	07월 20일	07월 30일	08월 01일
시대쉬														
프라다헤쉬														
아킬														
아데쉬														
우맘														
작데쉬														
하르샤드														
디네쉬														
아카쉬														
로한														
니데쉬														

축구 코칭 계획서(6.25~8.1.)

1차시	인터럽 트레이닝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2차시	기본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3차시	경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4차시	경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5차시	경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6차시	경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7차시	경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8차시	기본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9차시	경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10차시	기본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11차시	기본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12차시	경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13차시	기본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14차시	경기 -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방법 배우기











# Sports Event

담당 코디네이터의 소개로 스포츠 이벤트 담당자인 Rahul을 만나게 되었다. 스포츠 이벤트는 Bandra YMCA에서 준비한 행사로서 인도 아이들이 공부보다 운동을 경시하는 인식을 바꾸고, 운동을 통해서 많은걸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 우리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 Toy Library

전 기수가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시간과 장소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었다. 우리도 아이들이 많은 장난감들이 Boys' Home에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곳 담당자인 알렌에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소를 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계획 역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장난감 목록을 작성하고 장난감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 중에는 장난감 사용 설명서를 힌디어로 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장난감 도서관에 관해 지금까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구분하고 그 구성물을 확인했고 구성물을 정리한 표를 장난감 앞에 붙일 계획이다.









궁금증 &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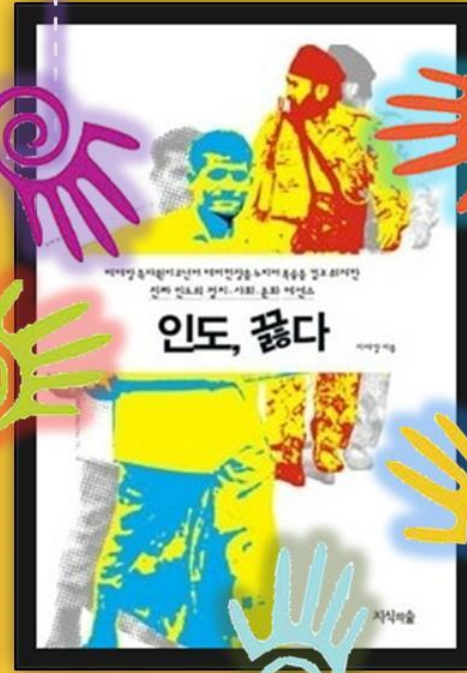


# 'Crossword, CrossIndia' 책 돌려 읽기 코너 1

\* 'Crossword' is the largest bookstore chain in India

이 책을 통해 뭄바이에만 국한되었던 시야를 인도 전체로 넓혀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드라는 나라는 지역마다 전혀 다른 모습과 문화를 가진 것 같아 신기했고 인도 내의 다른 지역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법에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불가촉천민의 존재 역시 부정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가촉천민에 대한 특별혜택(대학입학, 공무원 채용, 국회의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은 오직 인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점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인드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히 종교, 언어, 인종이 다양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잠시지만 살고 있는 이 인드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인도 내에서의 종교, 인종, 언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냐 간디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곳, 수 억명의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모두 전자 투표를 해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을 뽑는 곳, 10명 중 8명의 사람이 힌두교임에도 끊임없는 종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곳, 끝고 있는, 인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인도 회의당의 선거구호! “보통 사람들 (Aam Aadmi)”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치인 라훌 간디의 발언도 인상 깊다. (“인도를 위대하게 만들 사람들은 빈민입니다. 인도의 동력은 도시가 아니라 마을에서 나옵니다.”)  
- 인드란 나라에 더 애정을 갖게 해준 책 😊






 안데리 Y 캠프 도로에서 볼 수 있는 회의당 깃발! 깃발 속 회의당 상징 그림은 손바닥인데, 투표 시에 정당을 나타내는 그림으로도 활용된다. (유권자가운데 문맹자가 많기 때문!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모두 상징 그림을 가지고 있음)

 안데리 Y 캠프 건물 입구에 세워져 있는 회의당 간부들 사진! 인도 권력의 1인자 자리, 총리는 오른쪽에 있는 '만모한싱' 이지만 항상 사진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건 사실세 '소냐 간디' 이다. 외국인 여성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왼쪽은 소냐 간디의 아들, 회의당 vice president인 미남-미혼 라홀 간디)



 시내 버스 양 쪽에는 버스 번호가 마라티어로 쓰여있다. 그래서 처음에 버스를 탈 때 어려움을 겪었다. (옆면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긴 함) 이렇게 시내버스 번호나 지역 택시 면허 취득에 있어 마라티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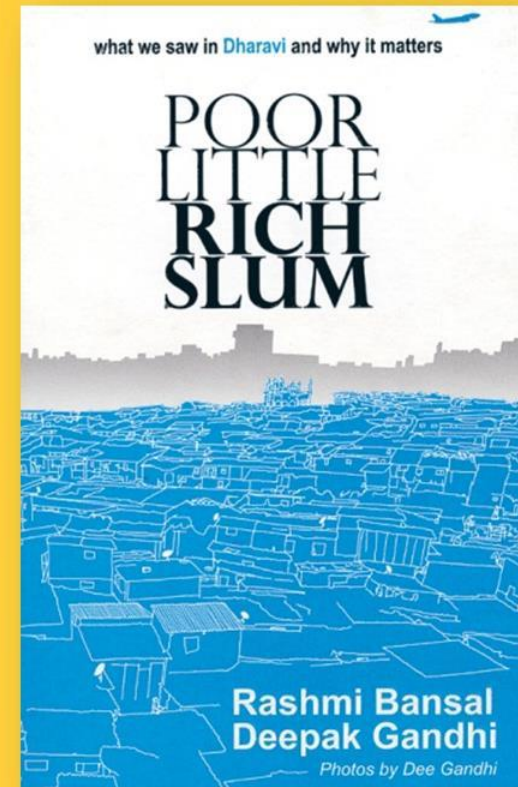
# 'Crossword, CrossIndia' 책 돌려 읽기 코너 2



Bombay YMCA  
Central branch의  
senior secretary,  
담당 코디 중 한 명인,  
마시마로를 닮은  
'아이작' !

아이작이 중간평가 때 즈음에 우리에게 읽어보라며 책을 한 권 사주었다. '다라비'에 관한 책인 'Poor Little Rich Slum'.

(인도 최대 슬럼가 중 하나인 '다라비'는 전 세계로 물품을 수출하며. 일년 거래액이 500~650 million 달러에 달함)  
다라비에 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도시. 빈민. 슬럼가. 빈곤. 발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대라비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는 구걸하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렸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라비에 갔을 때는 나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다. 그곳 사람들은 어느 곳의 사람들처럼, 아니 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책에는 대라비 안에서 개인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며 살아가는 동시에 대라비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 발전을 일궈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외부인들에 의한 발전을 원하지 않았다. 그곳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실제 모두 대라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부분이 라온아띠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인도의 한 친구가 구석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주소란에 대라비를 적고 있었다. 이걸 추측에 가깝지만, 아마 대라비에 관한 사회적 편견의 영향으로 구석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건 아닐지...?



슬럼이란 단순히 가난하고, 더럽고, 무법천지인 줄만 알았는데 대라비를 통해 이런 나의 편견이 깨졌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 어느 곳의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 비록 이들의 동기가 단순히 슬럼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르나 이들의 몸부림은 대라비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 인상 깊은 구절

“The problems of the poor are similar across the world – lack of opportunity, lack of access,” she observes.

It’s just that in the US, 20% of the population is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while in India it’s 70%.”

Because a life lived only for oneself is the biggest waste of all.

We can’t ask these questions because they are stupid. Life is thriving here, obviously people somehow adjust.

They adjust to lack of privacy.  
They adjust to lack of hygiene.  
They adjust to lack of progress.



## CIRCLE OF LIFE

The kumbhars are fighting for a losing battle, to preserve their way of life.

“We do not wish to be part of Dharavi Redevelopment Plan. We want self-development.”



Dharavi is the success story of a story of a community. A million individuals who have come together to create their own unique brand.

...

We are tigers in the urban jungle, solitary and self-sufficient. If you are born in Dharavi, it's different. The web of human relationships envelops you, supports you, nourishes you.

...

Dharavi is not just a physical location, it is an emotional entity. A city within a city, with the soul of a village.

...

Dharavi should be celebrated and replicated. Because every human being has the potential to be ignited. Poverty is nothing but state of mind.

# 포토 에세이





# ABHISHEK(나한영)



6월,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개월의 인도생활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출국 전 하루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3,4,5 그리고 6월에 내 눈 앞에서 벌어졌다. 중간평가 그리고 350ppm 캠페인으로 정신 없이 시작된 6월은 중순부터 Boys' home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하루들로 지나갔다. 그러다 보니 Morning tuition, 축구교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작업으로 인해 다음 달이면 돌아간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지만, 돌아갈 날이 한 달 남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는 마지막 보고서에 실는 글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란다.

첫째, 하루 나눔 시간에 다음 기수가 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순간 여자 단원들의 표정은 자기 것을 뺏긴 아이의 표정 마냥 서운함과 아쉬움이 묻어나 있었다.

그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지금 에세이를 쓰면서 여자 단원들과 같은 감정과 함께 사랑이 남긴 흔적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누군가의 흔적이 남은 영화, 책, 노래, 물건들을 다시 접하면 되감기 되는 기억처럼 아이들이 두 달 가까이 함께한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불가능한 욕심이 생긴다. 10기 또는 이후의 얼마나 많은 라몬아빠가 이 아이들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현재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뭉바미에 있는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한 번 더 눈 맞추고 듣고 웃고 안아주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아이들과 눈 맞추고 듣고 웃고 안을 때, 이 아이들에게 내 흔적의 잔상이 잠깐이라도 스쳐 Abhishek이라는 이름이 떠오르며 나를 잊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둘째, 나에게 라온아띠로서의 5개월을 돌아보면 나 자신에 대한 성장의 시간이었다. 학교와 취업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인도와 인도인들, 4명의 팀원들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과정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인 결과를 낳던 내 관점을 넓히게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넓고 깊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각자의 답만 존재할 뿐, 공통된 정답은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말, 책, 매체를 통해 접하지만 사람들은 나만의 답을 내세우며 서로 편 나누기를 하고 나 역시도 아직까지 나와 다른 답을 가진 사람을 한번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듣다 보면 한 단어, 한 문장을 더 듣게 되고 어느덧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라도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조금씩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어가는 것을 배운 것 같다.

몸, 머리 그리고 가슴이 뜨거웠던 5개월의 날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보고 듣게 될 수많은 것들을 더 넓고, 깊게 이해, 존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Aman(고동진)

365일 중 단 하루만 허락되는. 1년에 한번 있는 날이 바로 생일이다. 나는 그런 생일을 이곳 인도에 와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행운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에 나는 이런 행운의 생일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은 나를 너무도 부러워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다. 평소 생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고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곳에서 생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 하고 있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있다면 그곳에서는 가족과 친구 등 내 곁에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그나마 나를 잘 알고 있는 건 우리 팀원들 뿐이었다.



생일이 되기 전 우리 팀 팀원들은 나를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사실 나는 이런 몇몇 준비과정을 팀원들을 위해 일부로 모른 척을 했다.) 그리고 6월 16일을 알리는 12시가 되자 팀원들이 케익에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나를 축하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케익을 나눠 먹으면서 너무도 고맙고 정성이 가득한 선물들도 받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새벽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보이즈홈 아이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무려 3가지 종류의 생일 축하 노래와 내 생일인 걸 미리 알고 있던 아이들이 각자 나를 위한 생일 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전해 주었다. 나는 그 카드에서 아이들의 정성과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미안했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보답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도 없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하고 눈을 맞추며, 생일 케익을 나눠주고 또 함께 앉아 먹으면서 그렇게 나의 인도에서 맞는 생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인도에서 생일을 보내면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나의 가족, 친구들과 축하를 나누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인도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축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에는그들의 따뜻함과 사랑 또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아쉬워 했던 내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졌다. 어디서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고 또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 이를 이곳 인도에서 느낄 수 있었고 얼마나 소중한 값진 경험인지를 알 수 있었다. 정말 행복하고 잊지 못할 생일이였다.



## SONAM (박선영)

6월은 내게 생각할 여유를 주었던 한 달이었다. 6월 초까지는 350ppm 캠페인 준비하랴, 중간 평가 준비하랴, 당장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일들이 끝나고 찾아온 여유……. 난 특히 이 시기에 ‘잠들지 않는 도시’ 뭄바이에서 아주 잘 잠들었으며(원래도 잠이 많았지만 원래보다 더 많이 잤던 것 같다. 이게 여기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비결인 것 같기도 하다.) 그 외의 시간에는 주변에서 뭘 사먹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여유로움이 나는 불편했다. 몸은 매우 편했지만 마음 한 편은 불편했다. 이런 여유로움을 여기서, 지금 느껴도 되나?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건가? 나는 왜 마음 한 편은 불편해 하면서 더 열심히 알차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지?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더 해야만 했을까? 여기서 하는 활동이 단지 스케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진정 이곳에,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곳은 우리가 없어도 잘 굴러갈 것 같고 난 이들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뭘 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이곳 뭄바이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난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건지? 난 지금 이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모르겠다. 라온아띠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지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지난 에세이에서는 라온아띠로서의 생활이 환경, 교육, 빈곤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소비에 관심을 갖고..... 그렇다. 머리로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쉬웠다. 머리로 알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글로 쓰기까지는 쉬웠다. 그런데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수 많은 사소함으로 이루어진 내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웠다. 문제의식을 갖고 실천할 때에는..... 사소함이, 결코 사소함이 아니었다. 실천에 있어서는 사소함이란 없었다.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할 때에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에, ‘난 변해야 했고, 뭘 더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반면에 여기서 지내는 도중 느끼는 확실한 변화 한 가지... 이 곳에 오기 전에는 사람들과 관계맺는 것에 관해 막연하게 ‘인도인들’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 상상했었다. 나에게 이 곳 사람들은 그저 인도인들, 즉 다수였는데 어느 새 이 곳 사람들은 그저 인도인들이 아닌, 각자 이름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수가 아닌 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것이다.

타밀 나두에서 이 곳 까지 왔고 웃음소리가 귀여운 오피스 식구 ‘아몰’, 푸네에 친정집을 두고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아이’, 무슬림 형제이면서 음악적 흥이 넘쳐나고 비진 연기를 잘하는 ‘다스다기르’와 이런 그와 안 닮은 듯 닮은 동생 ‘후세인’, 최근 학교 여학생들로부터 러브레터를 많이 받고 있는 ‘아카시’(엄마한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함)와 그를 꼭 닮은 귀여운 동생 ‘디팍’,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안기는 걸 좋아하는 또 다른 꼬맹이 ‘아카시’, 한국어 배우는 걸 좋아하고 전 기수에게 ‘Don’t miss us.’라는 말을 전해달라던 ‘비샬’, 축구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를 ‘허르샬도(호날도+허르샤드)라고 불러달라는 ‘허르샤드’, 온 가족의 이름이 R로 시작하go 우리 집을 청소해주는 ‘라비’.....

막연하게 생각했던 인도인들이 이제는 하나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된 것이다. 즉 나에게 다수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들을 대할 때에도 인도인들을 대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 곳에서의 생활이 한 달 정도 남았다. 마무리를 해야 할 때라고 하지만, 아직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냥 떠나기 직전까지 초심으로 지내다 가고 싶다. 거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최선을 다하며 지내다 가고 싶다.





#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Priyanka (김조은)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고 고통받아야 된다.

웃기를 한번 스치는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게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

사진은 보이즈 홈 아이들과 등교길에 찍은 사진이다. 이 때 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어떻게 더 재미있게 남은 시간을 보낼까,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한국을 가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생각은 많이 변해있다. 아이들과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지칠 때도 때로는 아이들에게 화날 때도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런 지나친 장난을 끝까지 받아주고 웃으면서 넘어가고, 한국 갈 때 까지 아이들의 기억에서라도 좋은 디디가 될까, 아니면 아이들의 지나친 장난에 따끔하게 이야기 해주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디디가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은 더욱 더 심해지고, 나 스스로는 아이들의 장난을 막을 수 없었고 아이들은 작은 악마들이 되어있었다. 그러다 참지 못한 나는, 한 아이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결국 하우스 패런츠 '바바'의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 바바가 개입하고 나서야 그 아이와 나의 감정 싸움은 끝이 났다. 나와 한 아이는 결국 둘이 해결 할 수 있었던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서로 감정을 풀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었다. 바바의 앞에서 아이의 사과를 받고,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또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니, 별로 큰 일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더 어른인 내가 왜 그 잠시의 화를 참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겨진 사람들과 또 곧 올 사람들에게 들려질 나의 평가 때문에 아이의 행동에 참기만 하는 것은 옳은걸까. 한편으로는 난 부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어떻게 아이들은 내가 참기만을 바라는 것일까 아이들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나 사이의 분위기는 정말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내가 매번 하던 장난을 가지고, 바바에게 일렀느냐라고 눈치를 주었고, 나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긴 하지만서도 또 지지 않으려고 아이들과 자존심 싸움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 기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조언을 들었다. 사람인데 상처를 받았다고 마음을 닫는다면 후회만 남을 것이라고, 용기를 내어 아이와 꼭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서도, 아이와 이야기 할 자신이 없었다. 많은 아이들 있는 앞에서 그 아이에게 모욕을 준 나의 못난 모습도 생각나고, 말해도 나와 이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하지만, 미워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준 BOYSHOME 아이들이다. 이렇게 아이들과 끝내고 싶지는 않아서, 큰 용기는 내지 못했지만, 아이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아이와 화해를 했다고 모든 아이와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정말 이번 달은 나의 인도 생활 전체? 나에게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나의 편견이 산산조각 났고, 아이들과 만날 경험이 적었던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어른들과의 관계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아이들과의 생활이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는 내 생각도 무너져 버렸다. 앞에 법정스님이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마 나는 아이들이 너무 미워서 지금 이 순간은 다들 악마처럼 보이지만, 내 인도 생활 전체를 보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연이다. 이제 남은 기간 아이들과 나 모두 서로에게 좋은 인연으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



## Jyoti(천보람)



4개월 동안 뭄바이에서 살면서 얻은 나의 별명은 ‘감정 대마왕’이다. 우리 팀원들이 내게 지어준 별명인데, 감정 대마왕답게 이번 포토에세이도 감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룰 듯 하다(벌써부터 헐, 역시. 하고 있을 팀원들의 모습이 상상된다). 사실 나는 언제나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이번 유월에는 엄청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라온아띠를 지원할 때 썼었던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나는 인도에 인도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 하지만 그렇게도 간절히 오고 싶었던 인도, 그려왔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아이들과 있으면서 행복해할 내 모습은 진작부터 상상해 왔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팀’이었다. 팀원들 한 명 한 명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팀 활동을 등한시하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있는 순간이 좋았기 때문에, 팀으로서 서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나 아이들 곁에만 있게 되었다. 또 그다지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너무하게도 주인의식조차 갖지 못했다. 나는 라온아띠로서 이 곳에 있는 것인데 말이다.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나 스스로가 다가가지 못했던(않았던) 것이었음에도, 역설적이게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또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팀원들에게 쉽게 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지레 생각하듯이, 이야기한들 뭘하겠어.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간 평가가 끝난 후 하루 나눔을 할 때 나의 문제를 우리 팀원들에게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이야기하는 중에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이것이 비록 나의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팀원에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졌다. 왜냐면 같은 팀으로서, 팀원들이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것이고, 나를 이해해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남은 인도에서의 생활을 ‘팀’으로서, 라온아띠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고 신기하다.



어느 순간 그런 기분을 느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순간임에도 그 순간들이 나에게 이전만큼 그다지 큰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걸 느꼈다. 그렇게도 강렬했던 내 첫 마음이 무뎠어지는 걸 느꼈다. 사랑을 주려고 온 인도에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느끼게 되어버린 순간,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무섭고 두려웠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5개월 동안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주는 이유가, 그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너무 말도 안되게 우울해졌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내게 힘이 되어준 것은 우리 팀원들이었다. 되짚어 생각해보면 그 동안 나 스스로는 팀원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었었나 자신할 수 없는데, 우리 팀원들은, 나와 달리, 다른 주변의 어떤 것보다도 ‘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었다. 나의 안색을 살피주고, 내 표정을 보고 내 기분을 알아봐주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다.(꼭 맛있는 것을 사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하루는 갑자기 울어버린 내 옆으로 의자를 끌고 와 앉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주고 한참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물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 슬픈 감정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아니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공감은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같이 있는 그 순간,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사람’ 덕분에, 같이 있기에, 누군가 내 곁에 있음에 좋은 거다. 나도 우리 팀원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또 내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싶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 이고 싶다.





(요즘은 또) 10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 슬프다. 내가 뭄바이에서 겪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내 곁에 있는 아이들과의 자잘한 일들,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감정들을 다음 기수도 똑같이 느낄 거라 생각하니까 싫었다. 사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들이, 나 스스로가 봤을 때도 들추어내기 싫은 치부이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순간에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지만, 그런 최면으로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곧 떠날 사람이고, 곧 이 자리를 메울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것을.



한 동안,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큼 엄청난 감정의 굴곡을 겪었음에도, 또 나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일이 생겨난 것 같다(문제는 별 것 아닌 일에도 오만 가지 감정을 느끼는 이상한 나이지만). 하지만, 슬프거나 화나거나 기쁘거나 웃음이 나거나, 그 어떤 슬픈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 사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거의 일관적으로 말한다. 네가 느낄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이 부럽다고, 또 그런 게 너 아니겠냐고. 솔직히 당사자인 나는,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쓸데없이 느끼는 ‘감정들’이라 생각했기에, 나 자신도 나의 이런 모습들이 싫었다. 그럼에도 때때로는 이 뒤죽박죽 느껴지는 감정들이 바로 나를 만들어내는 감정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내가 느꼈었던 그 모든 정신 없는 힘들고 무거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던 데는, 역시나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이들의 눈빛과 웃음 덕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이제 다시 처음처럼). 내가 이번 6월에 겪었던 감정의 풍파들이 이제는 참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일기에는 무척이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저 지금 이순간에는, 내게 달려와서 꼭 안기는 작은 아이들을 생각함으로써, 다음 날 아침에 아이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잠에 든다. 그리고 나 때문에 화가 난 아이에게는 어떻게 다음 날 위로를 해주고 화해를 청해야 할지 걱정하면서도 잠에 든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든, 내가 지금 이 길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미래에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주리라고 믿는다.

Life in Mumb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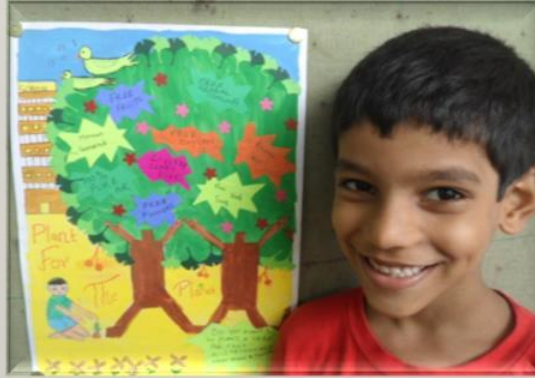


























# धन्यवाद!

(더녀와드. Thank you !)

